



## 21세기 교회와 윤리

---

저자 (Authors)	양명수
출처 (Source)	<a href="#">기독교사상 39(9)</a> , 1995.9, 30-30 (7 pages)
발행처 (Publisher)	<a href="#">대한기독교서회</a>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URL	<a href="http://www.dbpia.co.kr/Article/NODE00135990">http://www.dbpia.co.kr/Article/NODE00135990</a>
APA Style	양명수 (1995). 21세기 교회와 윤리. 기독교사상, 39(9), 30-30.
이용정보 (Accessed)	이화여자대학교 203.255.***.68 2017/12/22 21:43 (KST)

---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 21세기 교회와 윤리

— 인권과 하나님의 주권 —

양 명 수

(배재대 교수 · 기독교윤리학)

### I. 시대의 흐름과 교회

오늘날 국제 사회의 지도 원리는 인권이다. 21세기는 이 인권을 더욱 구체화해 가며 모든 문제를 푸는 규범으로 삼을 것이다. “세계인권선언” 전문에서 밝힌 대로 인권은 “모든 사람과 모든 국가가 도달하여야 할 공통의 목표”가 되고 있다. 앞으로 세계가 점점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감에 따라 한 사람은 자기 나라의 시민이면서 동시에 세계 시민으로 살게 된다. 그리고 그 세계 시민의 지도 원리가 인권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인권의 문제를 모른 채 하고 세계 시민이 될 수는 없다. 세계화란 여러 가지 뜻이 있겠지만, 우리가 세계 시민으로 당당하게 서서 세계 사회의 주체가 되겠다는 뜻이 있을 것이요, 그렇다면 칸트가 말한 대로 “인류에 대한 인류의 의무”로서 인권 의식을 가져야 한다.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다가오는 사회가 기술 발전의 결과로, 그리고 동시에 종래의 기술 사회에 대한 비판의 결과로 점점 긴밀한 관계의 그물로 짜인 사회가 될 것인데, 거기서 생긴 모든 윤리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보편 원리로서 인권에 대해 깊이 있게 실천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노인 문제, 환경 문제, 정보 사회의 문제, 의료 윤리의 문제 따위

를 풀어나갈 원리는 결국 사람이 사람답게 살 권리, 곧 인권이 될 것이다. 물론 교회는 지금까지의 인권 개념에 대해 할 말이 있다. 그리고 그 말을 해야 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문제이다. 지금까지 몇 백년 간 인권의 확립 과정에서 교회가 사회의 얘기를 일방으로 들었다면, 다가올 세기는 사회가 교회의 말을 들을 때가 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사회는 원하든 원치 않든 들을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지금까지 사회의 얘기를 진지하게 듣고 고민한 교회만이 할 말이 준비되어있겠지만 말이다.

우리는 모두 세기말에 살고 있다. 20세기 말은 새로운 천년 단위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다른 세기말과 다르다. 지난 천년 동안에 일어난 가장 큰 사건은 무엇일까? 교회사로 보면 프랑스의 샤를 마뉴 대제가 세례를 받으면서 중세가 시작된 사실과 16세기 초 일어난 종교 개혁일 것이다. 샤를 마뉴 대제의 세례는 유럽이 기독교 국가가 될 것을 예고하고 또 거꾸로 기독교가 유럽 문화와 만날 것을 뜻한다. 기독교는 유럽의 사고 방식을 형성하고 거꾸로 유럽의 사고 방식이 기독교를 설명하게 된다. 한편, 종교 개혁은 권위의 근거를 교회라고 하는 삶 바깥에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로 옮기는 효과를 가져왔다. 여기서 제도교회보다는 사람이 모이는 교회라고 하는 새로운 교회관이 싹트게 된다. 그리고 종교 개혁은 당시의 계몽주의와 맞물려 세속화 현상을 일으키며 일상 생활을 가치의 형성 장소로 찾게 된다. 16세기 초 이후 지금까지 세계는 유럽에서 일어난 그러한 사상적인 변화와 흐름의 영향을 입어 왔다. 무엇보다도 기술 문명을 받아들이며 서구의 정신도 같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종교 개혁 이후 오늘날까지의 시대를 가리켜 흔히 ‘근대’ 또는 ‘현대’라고 한다. 그러한 개념 규정은 특히 이른바 ‘탈현대 정신’(postmodernism)이라는 새로운 사상 흐름이 생기면서 더욱 분명해졌다. 21세기는 어떤 모양으로든 이 탈현대 정신의 영향을 입게 될 것이다. 물론 이 모든 사상의 흐름이 시작된 서양에 비해 우리는 훨씬 복잡한 현상을 띠는 것이며, 우리나라 교회도 서양교회에 비해 복잡한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다. 탈현대 정신이 내세우는 바는 인간의 주체성 제약이다. 현대의 가장 밑바탕을 이루는 정신을 수정하려는 것이다. 사람의 주체성 확립은 윤리 문제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고, 교회는 그 엄청난 변화에 큰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교회는 늘 하나님의 주권을 말해 왔기 때문이다.

사실 지난 몇 백년 동안 주체적 인간이 일구는 역사의 진보 아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고민해 왔다. 종교 개혁은 그 신호탄이었다. 우리나라는 근대화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 사람의 주체성 문제가 그리 심각하게 제기되지 않았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손쉽게 하나님의 주권을 말할 수 있었다. 서양교회가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는 도전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날로 확장되는 물질 문명과 자본주의, 또 정치와 경제 및 모든 분야에서 추구하는 민주주의는 사람이 주인이라는 의식 없이는 불가능하다. 좋은 면이든 나쁜 면이든 현대 문명이 진행되는 배경에는 사람의 주체성이 깔려 있다. 한국 사회가 근대화를 추진하고 있는 한 한국교회 역시 좋은 삶든 그 문제에 부딪힐 것이며, 이미 겪고 있다. 그 문제에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주권은 멀리 밀려날 것이고 교회는 표류할 것이다.

근본주의는 무슨 시대가 와도 고민하지 않으나, 어떤 모양으로든 그리스도와 문화의 관계를 인정하는 교회, 곧 문화에 대한 책임을 생각하는 교회로서는 무슨 시대가 와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시대는 현대가 확립한 사람의 주체성을 한 기둥으로 삼고 있는 시대이다. 그것은 인권을 확립했다. 동시에 새로 일어나기 시작한 탈현대의 바람은 어떤 모양으로든 사람의 주체성을 제약하고 새로운 질서를 찾고 있다. 크게 보아 21세기는 이 두 흐름의 공존 또는 공방전이 될 것이고 교회는 거기에 대한 응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문화는 언제나 교회에 도전하고 교회는 거기에 응전하면서 지내왔기 때문이다.

## II. 교회와 인권

오늘날 윤리에서 최고의 가치는 사람의 사람다움(humanness of every human being) 또는 휴머니티이다. 그리고 가치에 이르는 과정이 ‘인간화’이다. 사람은 이미 사람이지만 사람이 되어야 할 존재로서 사람답게 되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가 된다. 어떤 행위가 가치 있느냐, 윤리에 맞느냐 하는 문제는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데 이바지하느냐 하는 데 달려 있다. 그런데 사람의 사람다움은 가치의 내용이라기보다는 상당히 형식적인 선언이다. 사람다움이 뭔지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러한 형식적 가치 선언 속에 중요한 인간관이 들어 있다. 그것은 가치의

근거를 사람으로 보겠다는 것이다. 이제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를 말하는 데 하나님을 넣지 않겠다는 것이며, 사람이 있는 곳은 교회 말고 어디나 참다운 가치를 창조하는 곳이라는 얘기이다.

사람이 가치의 근거라는 말은 사람이 목적이라는 말이다. 사람은 인격으로서 목적이 되었다. 근대에 들어서며 인격자란 자기가 자기를 통제할 줄 아는 자, 곧 양심의 법에 복종하는 자였다. 해야 할 도리를 명하는 것도 나요, 본능과 욕심을 누르고 그 명령에 복종하는 것도 나다. 인격, 곧 사람다운이란 말에는 것처럼 하나님을 배제한 자유인이라는 뜻이 들어 있다. 자유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라기보다는 자기와 자기의 관계 회복을 가리켰다. 다시 말해서 자율이 자유였다. 그런데 그것은 자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개입을 배제한다. 도덕 명령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면 타율이라고 생각했다. 자율이란, 명령도 자기가 하고 자기 명령에 자기가 복종하는 것을 가리켰다. 근대인이 생각한 자유, 곧 구원은 그런 것이었다. 사람 바깥에 있는 존재, 곧 하나님과 자연으로부터 독립하는 것이 구원이었다. 물론 사람의 내면을 무조건 믿었던 것은 아니며, 본능(칸트가 말하는 Natur)은 이기적이라 자유를 이룰 수 없는 것도 알았다. 그러나 이기심을 누를 수 있는 소질(칸트가 말하는 Anlage), 곧 사람의 양심을 믿었다. 현대 사회는 사람에 대한 믿음에 바탕을 둔 사회이다. 그렇게 해서 사람은 도덕 주체가 되고 도덕 주체가야말로 참다운 주체가 된다.

사람은 이처럼 목적으로서 가치의 근거요 주체로서 자신의 삶과 역사의 주인이 된다. 그러면서 인간적이라는 말은 좋은 의미로 쓰이게 된다. 인간적인 모든 것을 죽이고 신적인 것 또는 성인을 닮아 가야 하는 시절에서 이제 인간이 갖고 있는 것을 모두 인정하는 시절로 넘어간다. 처음에 인간중심주의는 인간의 도덕 양심에 기대를 건 것이었으나 이후 인간의 감각과 성문제까지 은폐하기보다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낮게 생각된다. 자기를 제어하기보다는 자기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미덕이 된다. 인간의 감각이란 원래 퍼지고 흩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근대 초기에는 병적인 것으로 보았는데, 이제 감각을 평가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 사회가 다원화되고 관용이 통하는 사회가 되었다는 얘기이다. 그래서 율법주의 대신에 원칙의 윤리가 들어서더니만, 그것을 넘어 상황 윤리가 어느 정도 설득력을 지니는 시절이 된다. 이 모든 것은 인간에 가치를 두고 해방을 지향하는 거대한 운동의 열매이다.

사람이 목적이요 주체라는 사상은 인권을 확립했다. 말하자면 현대의 인권은 인간중심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는 셈이다. 인간중심주의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 사람을 목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사람 바깥의 모든 존재는 사람을 위한 수단이 된다. 사람에게 대하여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자연은 대상화되고 사람과 자연의 관계는 주체 대 객체의 관계가 된다. 인간중심주의에 들어 있는 또 하나의 뜻은 사람은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존엄하다는 생각이다. 그 신분이나 인종이나 성의 차이가 없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목적이라는 정신이다. 남아공의 만델라가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인간 중심의 나라를 만들겠다고 한 얘기도 그것이다. 이 두 개의 인간중심주의가 현대의 인권을 확립했다.

이 인권의 문제는 사실 교회가 마땅히 떠맡아야 할 부분이다. 두 가지 점에서 인권은 기독교 신앙에서 나왔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인간중심주의의 두 가지 측면과도 연결된다. 첫째는, 인간의 존엄성 부분이다. 토인비의 말대로, 오늘날 노예 해방이니, 여성 해방이니, 산업노동자 해방이니 하는 것은 사람의 존엄성에서 나왔고, 인간의 존엄성은 “신이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의 모습을 취하시고 십자가 상에서 죽음의 고통을 받으심으로써 인간의 영혼에 대한 사랑을 실증하셨다는 기독교 신앙에서 나온 것”(『세계종교 속의 기독교』)이기 때문이다. 성서는 십자가의 얘기를 통해 하나님이 목적으로 대접받기 이전에 사람을 목적으로 삼으셔서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치셨음을 증언한다. 또 하나는 사람이면 ‘누구나’ 존엄하다는 평등 사상이다. 초대 기독교인이 황제 숭배를 거절하고 바울이 “유대 사람이냐 그리스 사람이냐, 종이나 자유인이냐,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이기 때문입니다.”(갈 3:28)고 할 때 참다운 만민 평등을 선언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동등하다는 평등 사상이 오늘날 법 앞의 평등 사상의 모체가 되는 셈이다.

인권이라는 것은 오늘날 처음부터 사람에게 내재한 권리로 되어 있지만, 원래 기독교 신앙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자연권을 얘기하지만 자연권 이전에 하나님의 행위가 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연권을 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오늘날 인권 운동을 하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가 갈라져 있지만, 교회라면 인권의 문제에 무관심할 수 없으며 그래서 안 된다. 물론 인권이 운동을 통해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도를

계, 곧 주객 도식이란 관계 단절을 뜻한다. 객체가 일방으로 주체에 봉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사람과 자연,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는 단절되었다. 모든 것은 사람이 하고 자연과 신은 오로지 사람을 돕는 일만 한다. 것처럼 사람 바깥을 객체화한 것은 사람을 주체로 세우기 위한 방법이었다. 그 전에는 자연만 주체고 사람은 객체였으며, 중세의 교회에서는 하나님만 주체고 사람은 객체였다. 다시 말하면 현대 이전에도 관계가 단절되어 있었다. 그리고 인권 사상도 없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소수의 절대자를 뺀 대다수의 사람은 객체로 존재했다. 현대의 관계 단절은 현대 이전의 관계 단절의 공식을 뒤집은 것이다. 그래서 사람만 주체로 되고 자연과 하나님을 객체로 내몰았다. 모든 사람 곧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체로 세우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를 주체 대 주체로 세워 사람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고자 했다. 그것은 신분 사회, 인종 차별, 남녀 차별, 식민지 따위를 폐지하는 결과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남을 객체화하면 자기가 객체화된다'. 이 명제를 현대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적용했다. 그러나 이제 모든 존재에 확대해야 한다. '다른 존재를 객체화하면 사람이 객체화된다.' 지금 세상이 깨닫고 있는 점은 그 점이다. 그리고 그 문제는 지금까지 진지한 교회들이 현대 문화에 대한 응답으로 지니고 있던 것과 비슷하다. 자연의 문제까지 생각지 못했지만, 인권과 양립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해 왔기 때문이다. 그 교회들이 묻는 물음은 이것이다. '꼭 다른 존재를 객체화해야 사람이 주체가 되는가?'

원래 근대의 선구자들이 자연을 객체화할 때 하나님까지 객체화하려는 것은 아니었다. 뉴턴은 신의 영감을 강조했고, 케플러는 과학이 신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믿었다. 데카르트나 칸트의 철학에서도 신은 여전히 빠질 수 없는 개념이었다. 그러나 중세를 빠져나가기 위해 중세의 도식을 뒤집었다. 그 뒤집는 운동력은 결국 그때까지 인간을 누르던 중세의 하나님을 밀어내 버리게 된다. 어쨌든, 자연과 함께 마침내 하나님도 일반 사회에서는 객체화되었다. 그리하여 하나님 없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고, 인간의 양심과 이성을 믿는 시대가 지속되었고, 그 믿음을 기술 과학으로 인한 경제력 향상으로 뒷받침했다. 그러나 그 결과 생태계가 파괴되어 인류의 생존 자체가 위협받게 되었다. 날로 발

전하는 정보 통신망을 두고 이제는 낙관적으로만 말하는 사람들이 없어졌다. 그것이 커뮤니케이션을 트는 사회로 만들지, 오히려 통제 사회를 만들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게 되었다. 잘 살게 되었지만 소비가 늘어감에 따라 영성을 위한 금욕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가고 있다. 유전공학의 발전과 의료 기술의 발전은 사람을 사람이 조작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안겨 주게 되었다. ‘역사가 과연 진보하는 것인가?’라는 근본 물음도 생겨났다. 이제 인류는 결정적으로 겸손해야 할 시대가 왔다.

사람이 자연을 넘어서 근대화를 이룩했지만 이제 역사를 넘어서야 하지 않을까? 역사를 넘어서는 것은 역사 의식을 상실하는 것과는 다르다. 역사를 위해 역사 너머의 얘기를 듣자는 것이다. 역사를 넘어서는 것은 무작정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기보다는 자연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리고 역사를 넘어서는 것은 사람의 주권 하나님께 주권을 인정하자는 것이다. 그것이 정말 사람을 주체로 세우는 길임을 알리는 역할을 교회가 해야 한다. 원래 하나님은 사람을 주체로 세우는 분임을 알려야 한다. 사람이 목적이 되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 된 것임을 알려야 한다.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 모든 존재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다. 다른 모든 사람의 부름에 응답하여 인권을 이루고, 자연의 부름에 응답하여 자연과 관계 회복을 이룬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만물의 관계 회복을 꿈꾼다. 그것이 새로운 시대에 교회가 사회에 줄 말씀일 것이다.

### 하디시즘과 현대인

18세기 폴란드에서 일어나 동유럽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급진적으로 파급된 신비주의 운동인 하디시즘에 대한 책이다. ‘유대교의 경건주의’라는 부제가 붙었다. “하디시즘과 현대인”, “하디시즘의 삶”, “하디시즘의 가르침에 의한 사람의 길”, “신을 사랑하는 일과 이웃 사랑” 등등 여섯 단락으로 나누어 마르틴 부버의 하디시즘 주석을 한 데 모았다.

마르틴 부버 지음/남정길 옮김  
신국판/222쪽/5,000원